

#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

— 조선자료의 일본어 표현을 중심으로 —

柳 椿 姬\*

---

## 目 次

---

1. 서론
  2. 일본 국내자료에 있어서의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
  3. 조선자료에 있어서의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
    3. 1 동등표현
    3. 2 유사표현
    3. 3 비유표현
    3. 4 그 밖의 표현
  4. 맺음말
- 

## 1. 서론

일본어에 있어서 대상간의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그 유사점의 정도에 따라 크게 「同等表現」, 「類似表現」, 「比喩表現」으로 분류된다. 일본 국내 자료<sup>1)</sup>를 바탕으로 하여 平安시대부터 江戸시대까지의 문헌조사를 해보면, 동등표현에는 「同じ」 「等し」 「同然」, 유사표현에는 「似る」 「似通ふ」 「おぼゆ」 「見ゆ」 「聞こゆ」, 비유표현에는 「やうなり」 「如し」 등이 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에 관한 연구는 일본 국내 문헌을 자료로

---

\* 우송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

1) 소론에서는 일본 국내에서 발간된 문헌자료를 일본 국내자료라 칭한다.

한 연구가 부분적이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정도이고<sup>2)</sup> 일본 국외 문헌을 자료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sup>3)</sup>.

그러나 일본 국내 문헌이 아닌 국외 문헌자료라고 할 수 있는 조선자료에서도 국내 문헌 조사에서 보이는 결과가 인정되고 있어서 국내, 국외의 자료를 합한 종합적인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국내 문헌 자료에서 보이는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을 토대로 하여 조선자료에 보이는 일본어표현에 초점을 두고,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의 변천과정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그래서 조선자료에 보이는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의 역사적인 변천에 관한 해석도 행하고자한다.

## 2. 일본 국내자료에 있어서의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

먼저, 다음의 예문을 보며 일본 국내자료에 보이는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두기로 한다.

- 1) 御賜ばりの御封などこそ、みな同じごと遜位の帝と等しく定まりたまへれど、  
(若菜上、p.39)
- 2) 大臣の君に、同じかざしを参りたまふ。(胡蝶、p.162)
- 3) 若宮の御まみのうつくしきなどの、春宮にいみじう似たてまつりたまへるを見たてまつりたまひても、(葵、p.37)
- 4) 「何ばかりの親族にかはあらむ。いとよくも似通ひたるけはひかな」と思ひくらぶるに、  
(浮舟、p.114)
- 5) 「(大堰の)あたりをかしうて、海づらに通ひたる所のさまになむはばりける」と聞こゆれば、(松風、p.391)
- 6) 君は腕を枕にて、灯をながめたるまみ、髪のこぼれかかりたる額つきいとあてやかになまめきて、対の御方にいとようおぼえたり。(浮舟、p.112)
- 7) 例よりはうち乱れたまへる御顔のほひ、似るものなく見ゆ。(賢木、p.134)
- 8) 木高き紅葉の陰に、四十人の坦代、いひ知らず吹き立てたる物の音どもにあひたる松風、まことに深山おろしと聞こえて吹ききよひ、色々散りかふ木の葉の中より、

2) 일본 국내자료를 대상으로 한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에 관한 연구는 유(1997)~(2005)등이 있다.

3) 일본 국외 문헌 자료에는 크리스탄資料와 조선자료를 들 수 있는데, 조선자료나 크리스탄資料에 있어서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에 관한 연구에는 부분적이지만 편·유(2001)가 있을 정도이다.

(紅葉賀, p.386)

- 9) なほ、いかがのたまふ、と気色をだに見むと、心地のかき乱りくるるやうにしたまふ。  
目指しぼりて、あやしき鳥の跡のやうに書きたまふ。(夕霧, p.412)
- 10) 「このあらん命は、葉の薄きが如し」(手習, p.333)

위의 예문1)~10)는 『源氏物語』에 출현하는 용례이다. 각 용례를 보면, 예1)은 源氏の 급여, 직위 등이 太上天皇과 동등하게 정해져있다는 표현에 「等し」가 사용된 예이고, 예2)는 「藤の花」라는 장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표현에 「同じ」가 사용되어 있다. 반면에, 예3)은 夕霧의 얼굴 모습이 桐壺帝를 닮았다고 표현하는 곳에 「似る」가 사용되어 있으며, 예4)는 浮舟의 자태가 「中の君」를 닮았다는 표현에 「似通ふ」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예5)는 大堰의 집이 明石에서 살던 집의 분위기와 닮았음을 표현하는 곳에 「通ふ」가 사용되어 있으며, 예6)은 浮舟의 누워있는 자태가 中の君를 닮았다고 느끼는 장면에 「おぼゆ」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하면, 예7)은 지금 현재의 源氏of 모습이 어렸을 적 모습과 닮았다는 곳에 「見ゆ」가 사용되고 있고, 예8)은 가을바람마저 부는 현재의 분위기가 후카야마오로시 때의 분위기와 닮았다는 표현에 「聞こゆ」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예9)를 보면, 글씨체가 새의 발자국과 같다는 곳에 「やうなり」가 사용되고 있고, 예10)의 「如し」는 사람의 생명이 낙엽과 같다는 곳에 가 사용되어 있다.

상기의 예1)~10)를 보면, 예1)과 예2)는 대상간의 가치, 지위 등이 서로 동등하다는 표현에 「等し」 「同じ」가 사용되고 있고, 예3)~6)는 대상 A와 B가 유사점이 많아 서로 닮아있다는 표현에 「似る」 「似通ふ」 「通ふ」 등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예7)과 예8)은 대상A와 B가 공통점이 많고 구체적인 유사점이 인정된다는 곳에 「見ゆ」 「聞こゆ」가 이용되고 있다.<sup>4)</sup> 그 반면에 예9)과 예10)는 구체적인 유사점이 적고 주체가 대상 A를 B에 비유하고 있는 표현에 「やうなり」 「如し」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예1)~10)의 「同じ」 「等し」 「似る」 「似通ふ」 「通ふ」 「見ゆ」 「聞こゆ」 「やうなり」 「如し」 등은 대상간의 유사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표현으로 일괄해서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sup>5)</sup> 이러한 유사를

4) 예8)과 예9)는 대상 A와 B의 구체적인 유사점을 들고 있는 경우이므로 소론에서는 유사표현으로 취급한다.

5)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동등표현, 유사표현에 비유표현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이지만, 좁은 의미의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하면 비유표현을 독립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이다.

나타내는 표현의 범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대상간의 유사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sup>6)</sup>

- (1) 동등표현: 주체가 어떤 대상과 또 하나의 다른 대상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양자의 자리바꿈이 가능), 양자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표현.
- (2) 유사표현: 어떤 대상과 또 하나의 다른 대상이 어떠한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주체가 판단(양자의 자리 바꿈이 불가능), 단지 양자의 유사한 것으로만 취급하는 표현.
- (3) 비유표현: 어떤 대상을 또 하나의 다른 대상에 비유한 것으로, 양자의 유사점이 적고 주체의 주관성이 강한 표현<sup>7)</sup>.

위와 같은 분류에 의해서 일본 국내 문헌(平安시대 이전과 이후의 문헌) 100점이상<sup>8)</sup>을 조사해 본 결과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은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 국내자료에 있어서의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

시대/ 표현	동등표현	유사표현	비유표현
平安이전	同じ、等し、同然	似る	やうなり、如し
平安시대	同じ、等し	似る、似通ふ、 通ふ、おぼゆ、聞こゆ、見ゆ	やうなり、如し
平安이후	同じ、等し、同然	似る、似通ふ	やうなり、如し

6)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의 정의 및 범위 등에 관해서는 유(2000)가 자세하다.

7) 일반적으로 「비유표현」은 독립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간의 유사점에 초점을 두고 보면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도 취급할 수 있다.

8) 고찰대상으로 한 작품을 산문과 운문으로 나누어 보면, 산문은 80여점, 운문은 20여점을 고찰대상으로 하였다. 예를들면, 『万葉集』 『日本書紀』 『土佐日記』 『伊勢物語』 『竹取物語』 『大和物語』 『平中物語』 『蜻蛉日記』 『落窪物語』 『堤中納言物語』 『枕草子』 『源氏物語』 『和泉式部日記』 『紫式部日記』 『更級日記』 『讃岐典侍日記』 『夜の寝覚』 『大鏡』 『今昔物語集』 『方丈記』 『徒然草』 『宇治拾遺物語』 『平家物語』 『義経記』 『狂言集』 『御加草子集』 『仮名草子集』 『浮世草子集』 『井原西鶴集』 『近松門左衛門集』 『西山物語』 『雨月物語』 『春雨物語』 『宇津保物語』 『狭衣物語』 (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八代集』 등이다. 용례조사는 저자 직접조사에 의한 것이다.

<표-1>에 의하면 일본어 고전어에 있어서의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은 平安 이전과 이후보다 平安시대에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문체상의 문제로 平安이전에는 주로 한문체 문장을 사용하였지만 平安시대에는 假名文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sup>9)</sup> 특히, 동등표현, 비유표현보다도 유사표현의 경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 3. 조선자료에 있어서의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

소론에서 고찰 대상으로 한 조선자료는 『韓語訓蒙』 『交隣須知』 『漂民對話』 『講話』 『隣語大方』 『捷解新語』 『淑香傳』 『崔忠傳』 이며<sup>10)</sup>, 이들 문헌에 출현하는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을 일본 국내 자료의 분석과 같이 동등표현, 유사표현, 비유표현으로 분류해 보았다.

#### 2.1 동등표현

동등표현이란 대상간의 유사점이 많고 그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는 표현으로 조선자료에 보이는 출현상황은 다음의 <표-2>와 같이 정리된다.

9) 동등표현의 경우, 平安시대이후에 다시 「同然」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원래 平安시대 이전의 「同然」은 주로 한문체 문장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平安시대이후에 假名文에 반대하는 문체가 발달됨에 따라 재차 「同然」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10) 소론에서 고찰 대상으로 한 조선자료의 書寫연도는 편(2005)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捷解新語』 <初刊本(1676)><重刊本(1781)><改修本(1748)>, 『隣語大方』 <筑波大本(1751)><アストン本(1841)><京都大本(1859)><朝鮮刊本(1790)>, 『交隣須知』 <苗代川本(19世紀初?)><ソウル大本(1868~1873)><濟州本(1880年頃?)><中村本(不明)><小田本(1795)><沈寿官本(1813~1852)><アストン本(1842~1885)><初刊本(1881)><再刊本(1883)><冊正本(1883)><校訂本(1904)>, 『講話』 <京都大本(不明)><アストン本(不明)>, 『韓語訓蒙』 <沈寿官本(1834)><アストン本(不明)><京都大本(1864)>, 『漂民對話』 <アストン本(1845)><京都大本(1854)>, 『淑香傳』 <京都大本(1846)><沈寿官本(1856)>, 『崔忠傳』 <沈寿官本(不明)><京都大本(不明)>이다.

<표-2> 동등표현의 출현상황<sup>11)</sup>

作品/語	一同	同前 (同然)	同ジ	同様	等シ	一緒	總計
韓語訓蒙							
交隣 須知	卷1	<初>*1 <再>*1	<ア>*1 <武>*1 <校>2 *1				6
	卷2		<校>1				1
	卷3		<ソ>2 <濟>2 <武>2 <初>1 <再>1 <校>1				9
	卷4		<苗>*1 <小>*2 <ソ>*2 <ア>*2 <武>*1 <初>*1 <再>*1	<苗>3(1) <天>1 <武>3(1) <校>7	<初>1 <再>1	<校>*1	27
漂民對話		<上>1					1
講話			2				2
隣語大方			3(3)		1(1)		4
捷解新語		<原>6 <改>6 <重>3	<原>1 <改>1 <重>1				18
淑香伝			<京>1 <苗>1	<京>1 <苗>1			4
崔忠伝							0
總計	2	30	34	4	1	1	72

※ ( )속의 수는 카리활용의 경우이며, \*는 한국어 대역이 「혼가지로」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11) <표-2>를 비롯하여 <표-3>와 <표-4>의 용례수는 〃ゞ語數이고, <初>등은 주10)의 <初刊本> 등의 약칭이다.

上記의 <표-2>에 의하면, 동등표현에는 「一同」 「同前(同然)」 「同ジ」 「同様」 「等シ」 「一緒」 등이 출현하고 있어서 일본 국내자료의 경우보다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同ジ」와 「同前(同然)」이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다. 그 반면에 「等シ」는 총1예밖에 출현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同前(同然)」은 『交隣須知』의 卷4에서는 한국어 대역부분이 「한가지로」로 되어 있는 용례만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다음 구체적인 용례를 들어보면 예1)~예6)의 경우가 있다.

11) 同しだと区別がしにくからう。(『交』<校訂;027>)

↯흐면 분변키 어렵겠네.

12) どふしても云分と行作とは同じからぬもので御座りまする。

아무리 흐여도言行一同하기는 쉽지 아니호오니

13) 天地陰陽の氣と申者は寒進ば熱退て四時が等かりませぬもので御座れば

(『隣』三11a)

天地陰陽之氣란 거슨 寒進熱退하여 四時가 한갈갈지 못호옵거든

14) 슈팅은 첩과 ↯트니라

守庁ハ 妾ト 同様ジャ (『交』<再/四10b>)

15) 目をつぶって寝入った跡は死んだも同然てございます。

(『交』<校訂;126>)

눈을 감고 잠든 후에는 죽은 거시나 드름이 업소.

16) こうよう-お つとめまする-わ いづれも どうぜんて 御ざる-により

나라일을 힘쓰기는 대되 同前이오니. (『捷解』<改捷4:06b>K)

예11)~예13)은 일반적으로 동등표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同じ」와 「等し」의 예이다. 게다가 「同じかり」 「等しかり」와 같이 「かり」활용의 예도 보이고 있어서 일본 국내자료의 경우와 동일하다.<sup>12)</sup> 단, 조선자료에서는 「等し」의 용례가 총 1예밖에 출현하지 않는다는 점과 「A와 B가 다르지 않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예14)~예16)은 「同然(前)」 「同様」이 사용된 예로 수청과 첩(14), 잠자는 것과 죽은 것(15), 일의 힘든 정도는 같다(16)고 표현하는 곳에 사용된 예로 대상A와 대상B가 동등하고 어떤 면에서는 동일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예11)~예16)에서 알 수 있듯이 「同じ」 「等し」 「同然(前)」

12) 일본 국내자료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かり」활용의 예가 보이고 있다. 예를들면, 「いどましくなど思ひきこえさせたまふべきにはあらねど、心々なる様に、ひとしからで、かたみに睦びきこえさせたまはずぞありければ、」(『夜の寝覚』p.287) 등이 있다.

「同様」은 주로 「A와 B가 동일하다(같다)」 「A와 B가 다르지 않다」의 의미로 대상A와 대상B가 동일(동등)한 가치(위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17)~예19)을 보자.

17) 손을 고 혼가지로 드라나자

手ヲヒテドウゼンニニゲダサウ。(『交』 <再;四04b>)

18) 그적계는 귀(貴)헌 거슬 주시니 다 | 혼가지로 만이 먹었습네다

一昨日ハメヅラシモノヲ下ダサレタニヨリ皆一同ニ沢山ニタベマシタ。

(『交』 <初;一13b>)

19) 참여하여 혼가지로 먹습새

ハッテ 드우ニ 타へ마쇼우 (『交』 <苗/三54b>)

예17)~19)의 「一同」과 「同前(同然)」은 손을 잡고 같이 가자(17), 모두 함께 많이 먹었다(18), 참여하여 함께 먹자(19)와 같이 「A와 B가 함께(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어 대역부분이 「혼가지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용된 「一同」과 「同前(同然)」은 <표-2>에 의하면 『交隣須知』의 卷에1과 卷4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同然(前)」 「一同」의 경우에 「A와 함께」의 의미로 의미적 용법을 달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 할 수 있다. 하나는 저자가 写本당시 한국어의 사용에 미숙한 경우이다. 즉, 한국어의 의미 용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착오를 일으켰던 것이다.<sup>13)</sup> 또 하나는 원래 「A와 B가 동일하다(동등하다)」라는 의미에서 대상A와 B가 일치하여 같은 것으로 여겨져 「A와 B가 같다(함께)」의 의미까지 확장된 것이다. 소론에서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보다 문맥상 얻어지는 후자의 해석을 취하고자 한다. 따라서 「一同」과 「同前(同然)」도 동등표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예20)에서도 증명할 수 있다.

20) 携·일글 휴·게이·다즈사예루·다즈사예루 (『交』 <倭上/動靜,30a>)

<苗/四02b> 携 잇쓸고 혼가지로 가새

テヲヒテトフゼンニ ユカフ

13) 즉, 한국어의 「같이」라고 표기할 때는 「동일하다」라는 의미와 부사로 사용되는 「~와 같이」의 경우가 있는데 写本 時에 저자가 두 단어의 쓰임을 혼동한 경우를 말한다.

- <小/四04a> 携 잇쓸고 혼가지로 드라나자  
手ヲヒテ ドウゼンニ ニゲダサウ
- <ソ/四05b> 携 잇글고 혼가지로 드라나자  
テヲヒテ ドウセンニ 니게타소ウ
- <ア/四05b> 携 잇쓸고 혼가지로 드라나자  
テヲヒテ ドウセンニ 니게타소ウ
- <武/四05b> 携 잇쓸고 혼가지로 가새  
テヲヒテ 同前ニ ユカウ
- <初/四04b> 携 손을 쓸고 혼가지로 드라나자  
手ヲヒテ ドウゼンニ 니게다사우
- <再/四04b> 携 손을 쓸고 혼가지로 드라나자  
手ヲヒテ ドウゼンニ 니게다사우
- <校訂/134> 携 손을 쓸고 혼가지로 드라나자  
手を引いて一緒ににげだそう。

예20)는 『交隣須知』에 출현하는 용례로 「苗代川本」에서 「再刊本」까지는 「ドウゼン」으로 되어 있지만 書写시기가 가장 늦은 「校訂本」에서는 「一緒」로 되어있다. 「校訂本」에서 「一緒」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저자가 書写 당시에 자연스러운 일본어 표현으로 고친 것이다. 반대로 「苗代川本」~「再刊本」에서 「一緒」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ドウゼン」이라는 단어에 「A와 B가 함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자료에서의 동등표현은 「同じ」「等し」「同然(前)」「同様」「一同」등이 출현하고 있어서 일본 국내자료에 보이는 동등표현보다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의미면에서는 주로 「A와 B가 동일하다(같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서 『交隣須知』에서는 「A와 B가 함께」라는 의미까지 확장되어 사용된 경우도 있다.

## 2.2 유사표현

<표-3> 유사표현의 출현상황

作品/語	似る	近し	による	つりあう	たравす	總計
韓語訓蒙	<苗>1					3
	<京>1					

		<ア>1					
交隣 須知	卷1	<苗>1 <ア>1 <対>1 <武>1 <校>1					5
	卷2	<苗>2 <初>1 <再>1 <校>7					11
	卷3	<校>2					2
	卷4	<苗>2 <小>3 <ソ>3 <ア>3 <武>2 <初>2 <再>2 <校>1	<苗>1				19
漂民対話	<下>1						1
講話							0
隣語大方	4						4
捷解新語	<初>1 <改>1		<初>1 <改>1 <重>1	<重>1	<初>1 <改>1		8
淑香伝	<京>3 <苗>3						6
崔忠伝							0
総計	52	1	3	1	2		59

<표-3>에 의하면 유사표현에는 유사표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似る」가 압도적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일본 국내자료에서의 출현상황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似る」의 구체적인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1) <初/二07a> 猿猴 원숭이는 손이 길고 사름 모양 ㄹ트니라  
 猿猴ハ 手ガ 長クテ 人ノ 模様ニ ニテ ヲル  
 <再/二07a> 猿猴 원숭이는 손이 길고 사름 모양 ㄹ트니라  
 猿猴ハ 手ガ 長クテ 人ノ 模様ニ 似テ ヲル  
 <校訂/071> 猿猴 원숭이는 손이 기러 사름 모양(模様)ㄹ트니라  
 猿猴は手が長くて人間に似てゐる。(『交隣』)
- 22) <初捷9:11b>K こう 申-가 미카타-오 うち-에 にたれ-ども くわんちう-모 ことさび  
 し-에  
 이리 슬음이 내 편을 팀 ㄹ건마는. 箇中도 심심히매  
 <改捷9:16b>K こう 申-가 미카타 うち-에 にたれ-ども くわんちう-모 ことさびし  
 이-により  
 이리 슬음이 내 편을 침 ㄹ건마는. 箇中도 심심히매  
 (『捷解』)

예21)이나 예22)과 같이 대부분의 「似る」는 원숭이와 사람의 손(예21), 申이 내편인 것(예22)에 사용되어, 주로 유사대상의 유사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곳에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대역 부분은 「ㄹ다」라고 되어있고, 「A가 B를 닮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자료에는 일본 국내자료에 출현한 유사표현으로서의 「おぼゆ」「似通ふ」「通ふ」「見ゆ」「聞こゆ」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자료에 사용된 「おぼゆ」「似通ふ」「通ふ」「見ゆ」「聞こゆ」를 보면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23) まかりたつ-お-も おぼゑず ながざ つかまつり(『捷』<初捷9:03b>S)  
 니러섬도 생각 아니코 기러 안자시니.  
 24) いちにち あい-お おき ふつか あい-お おき かよう-ほどに  
 (『捷』<初捷4:25a>S)  
 히르 스이 두락 잇틀 스이 두락 왕니히니.  
 25) 방울 소리가 징々히여 멀리 들리옵니  
 スノ カタガ ガラヽヽシテ トヲクニ キコユル(『交』<文/三15b>)  
 26) 안개가 락이 끼여시니 더마쥬□ 아모리히여도 □□ 히엿습니  
 キリガ キツウ カケテ ツシマガ ドウシテモ ミヘマセヌ(『交』<沈/-04a>)

예23)~예26)를 보면 조선자료 속에서의 「おぼゆ」「通ふ」「聞こゆ」「見ゆ」는 「생각나다」「왕래하다」「들리다」「보이다」의 의미로만 사

용되고 있었으며, 「似通ふ」의 용례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극소수이지만 유사표현으로 사용된 「近し」<sup>14)</sup> 「による」 「つりあう」 「たらかす」 등의 구체적인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近し」와 「による」의 경우를 보자.

27) ドウヤラ 朝鮮人ノ詞(近)(『交』<苗;四17b>)

의연히 도선 사람의 말 ㄹ스외

28) むかしのこうもくにいつそくもによったがないお(『捷』<初;四13b>)

넛 公木の 一束도 마투니 업스플

원래 「近し」는 「A지점과 B지점의 거리가 가깝다」의 표현에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예27)에서는 조선 사람의 말투에 가깝다(닮아있다)라는 곳에 사용되어져 대상간의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 표현이다. 예28)의 「による」도 두 개의 대상이 닮은 곳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에 사용되어 대상간의 구체적인 유사점에 초점 둔 표현이다. 이러한 예27)와 예28)의 「近し」 「による」는 일본 국내자료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한다.

다음, 「たらかす」 「つりあう」의 구체적인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29) 御てまのめんじょくわさけのけがいつせつ御ざらんほどにさけとやう だいがたらかしられて御ざる。(『捷』<改;三21b>)

御手前 面上의는 酒氣一切업스오니 술과 거동이 ㄹ스외이다.

30) さけとやうだいがつりあいまして御ざる(『捷』<重;三21b>)

술과 거동이 ㄹ스외이다.

예29)의 「たらかす」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에 따른 해석으로 상대의 술을 마신 상태와 행동 등이 화자를 만족시킨다고 해석되는 경우로 「만족시키다」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문맥을 중시한 해석으로 상대가 술을 많이 마셨는데도 취한 기운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화자가 보기에는 술을 마셨지만 안마셨을 때의 행동과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하여 두 개의 대상을 일치시키는 것에 의해 「조화를 이루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소론에서는 문

14) 일본 국내자료에서의 「近し」는 지점A와 B의 거리를 나타내는 용례가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예를들면, この殿は、かの三条の宮といと近きほどなれば、(竹河、p.57) 와 같은 예가 있다.

맥의 의미를 취하여 후자로 해석한다. 따라서 「たらわす」를 유사표현으로 취급한다. 또한 예30)의 「つりあう」도 상대의 행동이 일치하여 조화를 이루다 라는 의미로 유사표현의 하나로 취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자료에 출현하는 유사표현 중에는 「A와 B가 일치하는 점이 있어서 두 대상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의미가 확장된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자료 속에 보이는 유사표현은 일본 국내자료에서와 같이 「似る」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반면에 일본 국내자료에 보이지 않았던 「近し」「による」「たらわす」「つりあう」가 출현하여 의미가 확장된 용법으로 사용된 점에 주목된다.

### 2.3 비유표현

<표-4> 비유표현의 출현상황

語/作品	韓語	交隣				漂民	講話	隣語	捷解	淑香	崔忠	總計
		卷1	卷2	卷3	卷4							
如シ		<苗>1 <ア>3 <対>1 <武>3 <初>1 <再>1 <校>1	<ソ>3 <濟>8 <初>6 <再>6	<苗>2 <天>1 <ソ>1 <濟>1 <武>1 <初>1 <文>2	<苗>2 <小>1 <ソ>4 <ア>2 <武>3 <初>5 <再>2	<上>3 <下>8		6	<初>2 <改>2 <重>2	<京>19 <苗>17	3	124
ヤフナリ		<苗>1 <ア>1 <対>3 <武>1 <初>2 <再>3	<苗>6 <ソ>3 <濟>6 <初>8 <再>6 <校>5	<苗>1 <天>1 <校>1	<苗>2 <小>4 <ソ>1 <ア>4 <武>2 <初>2 <再>5 <校>2	<下>3		9	<初>2 <改>2	<京>2 <苗>2	1	88
총계		19	57	12	41	3		9	4	4	1	212

<표-4>와 같이 조선자료에 보이는 비유표현은 일본 국내자료에서와 같이 「如シ」 「ヤフナリ」가 출현하고 있는 정도이다.

- 31) 口ヨリキリノ如キモノヲハクニ典ノ前ニ(『淑』104)  
 입으로서 안개 뚫튼거슬 吐혀 典의 앞피
- 32) 子ニテ灯下ニ花ノヤフナカタチツネナラズ清ヒ香ノ(『淑』110)  
 子息이오 灯下의 곳뚫튼 얼굴이 非常히고 맑은 香내
- 33) 병@魚·병어·혜이교·마나까즈오 <『交』倭下/水族,25a>  
 <苗/二16a> 兵魚 병어 입뚫치 적다  
 マナカツヲノ 口ノヨフニ チイサイ  
 <ソ/二13a> 兵魚 병어 입뚫치 적다  
 マナカツヲノ 口ノ如ク チイサイ  
 <濟/二13a> 兵魚 병어 입뚫치 적다  
 マナカツヲノ 口ノ如ク チイサイ  
 <會話/013> 兵魚 병어 입뚫치 적다  
 ---  
 <初/二10a> 瓶魚 병어(瓶魚) 입뚫치 적짜  
 マナガツヲノ 口ノ如ク チイサイ  
 <再/二10a> 瓶魚 병어(瓶魚) 입뚫치 적짜  
 マナガツヲノ 口ノ如ク チイサイ  
 <校訂/089> 瓶魚 병어(瓶魚) 입뚫치 적다  
 真魚鯉の口のやうに少ない。

예31)~33)의 「如シ」 「ヤフナリ」는 입안의 것을 안개에(31), 아이의 얼굴을 꽃에(32), 입모양을 병어 입에(33) 비유하는 곳에 사용되어져 있다. 이때 대상 A와 B는 서로 유사한 점이 적고, 주체의 주관에 의해 비유된 표현이다.

## 2.4 그밖에 표현

그밖에 동등표현 「同じ」와 「ヤウナリ」가 결합한 형태인 「同ジヤフニ」가 있다. 「同ジヤフニ」는 한국어 대역부분이 「뚫다」라고 표기되어 동등표현, 비유표현도 아닌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 34) 經營·경·케이에이·이도나미 (『交』<倭下/二字類,48b>)  
 <初/四30a> 經營 경영허고 늬과 뚫치 겨우 지내옴네  
 經營シテ 他ト 同ヤウニ ハツカニ クラシマス

<再/四30a> 經營 경영하고 놀과 꺾치 겨우 지내옵네다  
經營シテ 他ト 同ヤウニ ハヅカニ クラシマス

35) 至 니르러 보니 소문(所聞)과 맞치 꺾스오

イタツテ ミタニ キクトコマ 丁度 オナジャウニ ゴザル (『交』 <初/四02a>

예34)와 예35)의 「同ジャウニ」의 경우는 「~와 함께(같이)」의 의미로 부사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부사적 용법은 「同じヤウニ」 형은 출현하고 있으나 「同じ如く」와 같은 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자료 속에 보이는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을 보면, 일본 국내자료와 동일하게 동등표현, 유사표현, 비유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조선자료에는 동등표현이 「同じ」「等し」「同然(同前)」이외에 「同様」「一同」등이 출현하여 일본 국내자료보다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유사표현은 국내자료에서 볼 수 있었던 「通ふ」「似通ふ」「おぼゆ」「聞こゆ」「見ゆ」등은 조선자료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단, 조선자료에는 극소수이지만 「近し」「による」「たらわす」「つりあう」등이 출현하고 있어서 국내자료와의 다른 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조선자료에 동등표현은 「A와 B가 동등(동일)하다」라는 의미 이외에 「A와 B가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라는 의미 확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유사표현도 「A와 B가 닮다」라는 의미로부터 「A와 B가 일치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다」라는 의미로 확장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자료에서의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은 일본의 국내자료 보다 의미의 다양성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조선자료 속에서의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이 일본어의 유사를 나타내는 표현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에 있어서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 국내자료와 함께 연구되어야만 할 부분이기도 하다.

그밖에 「同ジャウニ」가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 의문점이 남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今後の 과제로 한다.

## 【참고문헌】

- 유춘희(1995) 「平安時代における「見ゆ」について」 『人文科学研究』 3  
(1996a) 「「おぼゆ」考 — 『源氏物語を中心に』 —」 『日本語と日本文学』 22  
(1996b) 「平安時代に 있어서의 「おぼゆ」 에 관한 考察」 『日語日文学研究』 28  
(1996c) 「「通ふ」 の用法」 『筑波日本語研究』 創刊号  
(1997) 「「類似表現」 の諸相」 『日本文化学報』 3  
(1998a) 「類似を表す表現 — 文法的な現象を中心として—」 『日本学報』 40  
(1998b) 「類似を表す表現 — 知覚動詞を中心に—」 『日本文化学報』 5  
(1999) 「類似を表す表現 — 「等し」「同じ」を中心に—」 『日語日文学研究』 35  
(2000a) 「類似を表す表現 — その意味と範囲—」 『日本研究』 15 pp.47-48  
(2000b) 「「等し」考 — 意味と用法を中心に—」 『日本文化学報』 9  
(2001) 「平安時代における「通ふ」の用法」 『日語日文学研究』 39  
(2002) 「「同然」に関する研究」 『日本学報』 50  
편무진·유춘희 (2001) 「朝鮮資料に見られる「類似表現」」 『日本文化学報』 10  
편무진(2005) 『『交隣須知』의 基礎的な研究』 제이앤씨 p.228

※ 이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 미공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단국대 어문학부 편무진 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要 旨

本論文は朝鮮資料の中に見られる類似を表す表現に焦点をおいた研究で、日本の国内資料との比較を行いながら諸現象を指摘したものである。

まず、朝鮮資料の中での類似を表す表現は国内資料と同じく同等表現、類似表現、比喩表現に分けられる。そのうち、比喩表現の諸現象は両資料ともに同じく現れるが、同等表現は朝鮮資料の方が国内資料より多様性を見せる。反面、類似表現は国内資料の方が朝鮮資料より多様性が認められる。ただし、朝鮮資料の中にはまれであるが、国内資料の中に出現していない「近し」「による」「たらわす」「つりあう」などが現れる点に注目しておきたい。

次に、意味的な面で、朝鮮資料における同等表現は「AとBが同等(同様)である」の意味以外に「AとBと一緒に」の意味へ拡張して使われている場合がある。一方、類似表現の場合も「AがBに類似している」のほかに「AとBが一致することによって調和がとれる」の意味への拡張が見られる場合がある。このような朝鮮資料の中に見られる意味拡張の用法は国内資料には現れない現象として指摘できる。

以上のような朝鮮資料に見られる諸現象は、日本語の類似を表す表現の変遷過程における日本の国内資料とともに特集な意味を呈していることをさす。

キーワード : 類似を表す表現、朝鮮資料、同等表現、類似表現、比喩表現、意味拡張

투 고 : 2006. 11. 30  
1차 심사 : 2006. 12. 9  
2차 심사 : 2006. 12. 30

住 所 : (300-718)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우송대학교 관광경영학과  
電 話 : 042-630-9774  
e-mail : [yuch@woosong.ac.kr](mailto:yuch@woosong.ac.kr)